

오피니언

다산포럼

최 일 남



책을 사거나 빌리면 열 일 제치고 당장 물이 담긴 시집이 누구에게나 있다. 한창 때는 더구나 밤을 새워야 마땅하다. 하룻밤을 자도 만리성을 쌓는 따위 형이하학적 유열(愉悅)은 범접조차 못할 충족감이 첫 새벽의 박망과 더불어 빠르히 피어올랐다. 밤을 지새우고도 끄떡없는 체력과 밤 사이에 지식의 부족은 것 같은 느낌이 좋아, 기쁨 두 배의 자기 도취를 고의적으로 압받거렸다.

그때나 이때나 철학은 참 어렵다. 용어 자체가 난삽하여 선부터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다. 예전의 일본 철학자들 간에 데카르트, 칸트, 쇼펜하우어를 한 두름에 엮은 탄식의 노래가 그래서 유행했다고 듣는다.

이열치열의 책임기

지금의 나는 어렵었다. 감동은 박제되고 속도는 느려져서 삼매경을 지속적으로 누리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늘 무릎 꿇으려고 애쓴다. 독서를 안하면 입 안에 가시가 돋는 경지를 감히 상상하기보다는 읽고 쓰기로 업을 삼는 자의 일상에 그냥저냥 굽은 비롯이다.

최근에 구입한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이성비판 1·2권'(백종현 옮김·아카네 발행)은 소시적에 일역관을 기웃거리다 질겁한 것이어서 적잖이 반가웠다. 20년 걸려 완전 번역역의 지극력이 놀랍고, 오성을 '지성'으로, 선험성을 '초월성'으로 바꾸는 등 일본식 번역 용어를 탈피한 점이 독자의 한 사람으로 드디어 흐뭇했다.

이른바 '데칸소부시(타령)'. "데칸소 데칸소로 반 녀를 보내고 나머지 반 녀를 자면서 지내네네."

어째서 그 동네 말은 처음부터 이해하기 힘들까. 백 퍼센트 문외한의 객쩍은 우문으로 돌릴지언정, 일본에서도 철학의 난해는 자구(字句)의 난해라는 불만이 없지 않았다. '나의 이와나미(岩波) 이야기'의 저자 아마모토 나쓰히코가, '선(善)의 연구'로 유명한 니시다 기타로를 두고 터뜨린 불평이 가령 그렇다.

"니시다 철학의 키워드는 '절대모순적 자기동일'인데, 아무리 생 각해도 모르겠네. 자기동일이 영어의 아이덴티티라는 걸 알면 다 들에계게할 것이다. 아이덴티티 카드는 신분증명서 아닌가. 그 것을 자기동일로 번역한 것은 명역 같지만 아니다. 니시다 본인 과 그 책을 필독서로 삼은 학생만 알고 일반 독자는 모르는 말이다."

경우는 전혀 다르지만, 일어판 '조선민요집', '조선풍요선', '조선시집'등을 낸 김소운 역시 "손톱이 들어가지 않는 니체니 쇼펜하우어 같은 이의 철학서와 혼자 씨름하다가 18세 되던 해에 음독을 했다"고 술회한 적이 있다.

아무려나 철학은 2차대전 이전의 일본 쇄외 중에서도 철학은 한층 입지가 좁아진 듯한데 근자에 와서 조금씩 나아지는 기미가 보인다. 백종현 교수의 '순수이성비판' 번역은 130쪽에 달하는 '해제'를 맨 앞에 따로 내 세워 나 같은 독자로 접근하기가 쉽다. 그 부분만 읽어도 소동이 크러니와, 나는 상상 웬만한 책을 그런 식으로 소화하지 못했다. 게으르고 힘이 부쳐 여간해서 독파를 마음먹지 못한다. 덕분에 눈치껏 차례를 훑어 이리저리 껴맞추는 요령만 늘었다. 하물며 덜컥 겁부터 주는 철학서적임에랴. 세계문화전집을 순서껏 대하다가 내키는대로 빨아 읽은 수법이다. 왕도가 따로 없는 독서 기법의 개인화를 짐짓 누리려 한다.

물론 철학 분야를 천착하는 '오리지널 학구파들'의 각고면려에 감복한다. 책사에는 2권짜리 니체전집도 있다. 그속에는 소설처럼 읽다가 흔한 '차르투스트라'도 그렇게 말했"도 물론 들어 있다. 요즈마엔 '헤겔, 영원한 철학의 거장'도 나왔다. 한편 걱정스럽다. 얼마나 팔릴까 싶어 서다. 그러나 든든하다. 이만한 축적이 있어 믿음직스럽다는 낙관에, 가볍기 짝이 없는 말꼬리 이어달리기조차 공포에 대한 실망이 겹친다. 가다가는 사는 일의 기본과 바탕에도 눈을 돌려야겠다.

〈소설가〉 다산연구소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광복 61주년 '제2의 건국' 계기로 삼자

다시 광복절이다. 광복 61주년을 맞은 올해는 특별법을 제정해 친일파와 그 후손들의 재산환수를 역사상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회가 새로울 수밖에 없다. 광복 61년의 역사는 과관만장했다. 남북 분단과 6·25전쟁,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3선 개헌, 유신, 10·26 사태, 5·6공군부독재, 6·29 선언과 대통령 직선제 쟁취, 문민정부와 IMF 경제위기, 여야 첫 정권교체와 김대중 정부 출범,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 노무현 정부 출범 등 숭한 사건을 겪어왔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격동의 역사를 헤쳐온 것이다.

지금의 국내외 상황도 심상치 않다. 총리를 비롯 일본 정치인들은 야스쿠니 참배를 강행하고 있고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갈등도 심각하다. 남북관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경제 국면에서 빠져 들었고 미국과 북한의 강경 대치는 한반도를 위기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다. 전시작전통제권을 비롯한 미국과의 외교 관계도 예전 같지 않다. 국내적으로는 보·혁간 이념분쟁으로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고 국토는 곳곳에서 충돌하며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국민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정치권은 내년 대선을 겨냥해 고집과 기싸움에만 몰두할뿐 민생은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 한마디로 총체적 위기상황이라 할 수 있다.

광복 61주년을 맞은 오늘, 모두가 광복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국민통합과 국가역량의 결집이다. 현재의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지 않으면 국내외 위기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없다. 광복이 주는 오늘의 의미는 '제2의 건국'을 통해 경제 재도약과 선진국 진입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광복절이 민족정기를 곧추 세우고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설계하는 대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빈부 이어 이젠 학력도 대물림 사회인가

소득 수준별, 학력 수준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갈수록 크게 벌어지고 있다. 통계청의 올해 2·4분기 전국 가계수지 동향을 보면 소득 상위 20% 고소득층과 소득 하위 20%의 저소득층 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지난해 6.0배에서 6.9배로 확대되면서 통계작성 이래 가장 크게 벌어졌다. 대졸 가구주와 초졸 가구주 간 사교육비 지출도 7.7배에서 10.9배로 더욱 확대됐다. '빈부와 학력의 대물림'이 고착화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이 같은 사교육비 격차는 소득의 불균형과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는 대부분의 소득계층과 학력계층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유독 하위 20% 빈곤층과 중졸 이하 저학력자들의 지출만 감소한 데서도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정부는 공교육 시스템을 개선해 사교육에 의해 교육성과가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교육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임을 알아야 한다.

다. 전신작전통제권을 비롯한 미국과의 외교 관계도 예전 같지 않다. 국내적으로는 보·혁간 이념분쟁으로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고 국토는 곳곳에서 충돌하며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국민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정치권은 내년 대선을 겨냥해 고집과 기싸움에만 몰두할뿐 민생은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 한마디로 총체적 위기상황이라 할 수 있다.

미국과 북한의 강경 대치는 한반도를 위기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다. 전신작전통제권을 비롯한 미국과의 외교 관계도 예전 같지 않다. 국내적으로는 보·혁간 이념분쟁으로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고 국토는 곳곳에서 충돌하며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국민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정치권은 내년 대선을 겨냥해 고집과 기싸움에만 몰두할뿐 민생은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 한마디로 총체적 위기상황이라 할 수 있다.

다. 전신작전통제권을 비롯한 미국과의 외교 관계도 예전 같지 않다. 국내적으로는 보·혁간 이념분쟁으로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고 국토는 곳곳에서 충돌하며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국민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정치권은 내년 대선을 겨냥해 고집과 기싸움에만 몰두할뿐 민생은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 한마디로 총체적 위기상황이라 할 수 있다.

다. 전신작전통제권을 비롯한 미국과의 외교 관계도 예전 같지 않다. 국내적으로는 보·혁간 이념분쟁으로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고 국토는 곳곳에서 충돌하며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국민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정치권은 내년 대선을 겨냥해 고집과 기싸움에만 몰두할뿐 민생은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 한마디로 총체적 위기상황이라 할 수 있다.

無 等 鼓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스포츠 스타는 단연 골프선수 타이거 우즈다. 지난해 9천763만달러(약 930억원)를 벌어들여 3년 연속 운동선수 소득 순위 1위를 차지했다. 돈벌이에서도 황제급이다.

한국인 스포츠 부호(?)로는 최경주 선수가 꼽힌다. 한국인 최초의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멤버인 그는 지난해 1천만달러의 고지에 올랐다. 미국 진출 7년 만에, 투어 191개 대회 출전만에 거둔 쾌거다. PGA에서 지금까지 상금 1천만달러를 돌파한 선수는 불과 64명으로 최고의 실력은 물론 꾸준한 성적을 올려야 도

퍼팩트 김기현도 626만달러로 상위 5랭크에 들어 있다.

최근에는 박지성이 한국 축구 사상 처음으로 연봉 50억원을 돌파해 화제였다. 51억원을 웃도는 금액에 소속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계약함으로써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오는 20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내년 5월까지 40여경기를 뛰는 그는 1경기당 1억원이 넘는 돈을 버는 셈이다. 주급이 1억원이다. 미프로야구에서 활약하는 박찬호의 월급은 연봉 150억원에 이른다.

종목별 소득의 형태 등이 다르고 세율도 차이가 있어 이들의 우열을 단순평가하는 데는 무리가 있지만 1위 박찬호 2위 최경주 3위 최정수 순이고 이영표, 박세리가 소득상위 5인방에 들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스포츠 유망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들의 성과는 과거의 노력 끝에 세계적 스타들과 경쟁해 일군다는 것이라 더욱 값져 보인다.

/기현호 체육·여론매체부장 khh@

스포츠와 富



NGO 칼럼

유 혜 랑



14~19일 광주시청 1층 전시실에서 열리는 '미군 병사들과 한국 아이들, 그들의 사랑이야기' 사진전시회는 여러 과정 안에서 이루어졌다.

필자는 자신들의 뿌리를 찾아 충현원을 방문하는 원생 출신들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충현원의 역사를 정리하고, 보관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 흠어진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호남신학대학교 차종순 총장으로 부터, 본원의 박순이 여사가 지난 1953년 45명의 고아들을 주부의 자녀로 기르겠다는 서약을 하고, 우일선 선교사 사택에 충현원을 개설하였다는 내

선 선교사의 본명) 선교사의 집에서 시작되었다는 자료들을 발견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드레이크 박사가 8월 초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충현원을 방문하고 싶다는 전화를 받았다.

한국을 방문한 드레이크 박사는 옛 고아원 자리를 방문하고, 충현원에 머물면서 새벽마다 혼자서 주변을 돌며 많은 생각을 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국에 유일할 1950년대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살아있는 역사의 공간이자 인류애의 문화적 가치가 무궁무진한 곳이며,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전쟁 고아들의 사진)이 빛나게 될 장소라고

전쟁고아들을 품어주는 광주가 되기를

유혜랑의 영문 보고서를 전달 받았다.

또 한국 전쟁고아들에 관한 웹사이트에서 충현원 자료를 조금 얻게 되었고, 미국전몰장병기념일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전쟁고아 관련 사진전시회가 열리는 것을 알고, 충현원의 자료를 찾기 위해 참석하였다가 드레이크 박사를 처음 만났다.

라스베이거스 호텔 맞은편 방에 투숙한 카터 블라이스텔 목사부부(1951년 서울에서 950명의 고아들을 구해 제주도로 보내 러셀 블라이스텔 군목의 아들)가 관심을 보이며, 우리에게 이곳에 온 이유를 물었다. 충현원의 발자취를 찾기 위해 왔다고 하자, 자신이 사는 곳

이 남장로 선교사들의 공동체이기도 한 교회박물관이 있고, 일정상 30일 후에 찾아오면 도와주겠다고 하고 서로 헤어졌다.

그 뒤 블라이스텔 목사의 도움으로 남장로 선교박물관에서 선교 활동 보고 자료를 열람하고, 충현원이 윌슨(우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그 동안 해외로 입양된 후 조국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민주·인권·평화의 도시인 광주가 품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들이 광주를 방문하여 입양 당시의 상황을 되돌아보면서 상처 많은 입양인으로서 전쟁 당시의 조국과 고향의 어려웠던 사정과 형편을 이해하게끔 도와야 한다. 친부모와 조국을 그리워하는 우리의 혈육들에게 광주의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위로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확인할 수 있는 문화 공간과 프로그램의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번 전시회가 광주가 계획하는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의 조성에 어울리는 문화 콘텐츠의 하나가 되려 한다고 했다.

더불어 이 전시회가 선교와 사회복지 문화를 제창조하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소망한다.

〈호남사회봉사회(옛 충현원) 상임이사〉

시내버스 안 시계 부착했으면

출퇴근길 시내버스에 탔다가 몇 시인지 몰라 답답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정체가 심해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가 없다. 물론 휴대 전화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시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 중 상당수가 노인들인 만큼 휴대 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 휴대 전화를 가지고 있더라도 액정 화

면이 작아 불편한 경우도 적지 않다. 여러 종류의 광고판만 부착할 게 아니라 시민 편의를 위해 시계를 부착하는 작은 배려를 해줄 수는 없을까. 모든 버스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무작정 대중 교통 이용 활성화를 요구하기 보다는 진정한 시민들의 편리한 '발'이 될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챙겨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남영·광주시 서구 광천동



오소리, 밝은 세상으로 나오다

오소리라는 동물을 설명해놓은 책을 뒤적이다보면 부지런하고 모정이 강하다는 설명이 붙어 있다.

그때만 해도 '부지런하면 얼마나 부지런할까'라는 의심만 들었다.

그러다가 지난 2004년에 오소리 한 쌍을 분양받아 키워보니 달라진 점이 많았다.

처음 동물원에 왔을 때 '과연 저 오소리들이 제대로 적응을 해 새끼를 낳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한동안 자기 집 밑에 부지런히 굴을 판 뒤 그 속에 들어가 도롱 나오지를 앉았기 때문이다. 고작 야간에 잠깐 얼굴을 내밀어 던져놓은 닭을 먹은 것이 전부였을 정도.

어느 날 청소때문에 오소리 집에 들어갔는데, 빈 집엔 닭 배 쓰레기만 그득 쌓여 있었다. 기껏 동물원에서 만들어 놓은 좋은 집을 쓰레기장으로 쓰면서 지하에 땅굴을 파고 사는 오소리들, "정말 성격 이상하네"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왔다.

이쯤 되면 조심성이 지나치다 싶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4월 오소리가 땅굴



속에서 새끼 3마리를 데리고 나왔다. 이번에는 땅굴 밖에서 뛰어놀고만 싶어하는 어린 새끼들을 땅굴 속으로 몰아 나르느라 고생했다. 정신이 없을 정도로 왔다 갔다 했다. 얼마나 했을까. 결국 부모가 놓은 좋은 집을 쓰레기장으로 쓰면서 지하에 땅굴을 파고 사는 오소리들, "정말 성격 이상하네"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왔다.

어두운 땅굴 속에서 밝은 세상으로 나온 것이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맞지 않은가.

◇ 최홍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화장품 방문판매사 붕괴 이제야 근절돼야

최근 화장품 회사의 방문 판매자에게 여드름 흉터와 잡티에 효과적이라는 화장품 3개를 구입하고 50여만원어 카드와 현금으로 나눠 지불했다.

화장품을 바른 지 6일 뒤부터 얼굴이 가렵고 여드름과 좁쌀같은 뾰루지가 나기 시작했다. 판매자에게 말했다니 3일만 쉬었다가 바르라고 했다. 그러나 다시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 판매자에게 다시 얘기했다니 반품은 문제가 아니니까 일단 보관하고 있으라는 말을 들었다.

연락이 없어 보름 뒤 전화했다니 반품은 안된니 여드름 제품으로 가져다 준다고 했다.

여드름 때문에 구입한 것이 아니라 잡티 때문에 사용한 것인데 여드름 제품을 쓰라

는 건 말이 안되지 카드결제 취소해 달라고 했다.

판매자는 '물건을 뜯어서 안된다'며 '누가 그런 물건을 반품해주냐'고 했다. 방문판매용 화장품의 경우 부작용이 생기면 반품해주는 걸로 알고있다고 했더니 '항상 그런 식으로 살았냐'며 큰소리를 쳤다.

너무 화가나 소비자상담실의 도움을 받아 의사조견서를 첨부, 내용 증명을 발송한 뒤 2주 가량 지나서야 환불금액만큼 매달 송금받기로 했다.

환불 조치를 받는 것이 큰소리를 치고 소비자상담실까지 연락해서야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다. 아직도 먼 것 같다.

▲천강희·광주시 북구 각화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善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業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 회 2 부 2200-619	총 무 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 고 국 2200-521	관 매 부 2200-551
정 치 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다 지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시 업 2 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구독료 월정 5,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